

# 김헌창의 난 신라의 체제 모순을 드러낸 대규모 반란

822년(헌덕왕 14년)

## 1 개요

신라 무열왕(武烈王)계의 유력한 귀족이었던 김헌창(金憲昌)이 자신의 부임지였던 웅천주(熊川州)에서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다. 반란군은 한때 신라의 9개 주 중에서 5개 주를 장악할 정도로 기세가 거셌으나 결국 진압되었고 김헌창은 자결하였다.

## 2 원성왕의 즉위와 김주원의 퇴진

785년(선덕왕 6) 선덕왕(宣德王)이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죽으며 신라에서는 왕위 계승을 둔 갈등이 발생하였다. 차기 왕으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친족인 김주원(金周元)이었다. 그는 무열왕의 후손으로, 혜공왕(惠恭王)대 시중(侍中)의 직을 지냈던 신라 정계의 중심인물이었다. 군신(群臣)들은 후사를 논의한 결과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주원의 집은 경주 북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와 알천(闕川)의 물이 불어 건너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어떤 이가 폭우가 내린 것은 하늘이 뜻이라 말하며 덕망이 높은 김경신(金敬信)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하여 왕위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김경신이 바로 원성왕(元聖王)이다. [관련사료](#)

원성왕은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의 12대손으로 혜공왕대 말에 왕궁을 범한 김지정(金志貞)의 반란을 진압하고 선덕왕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우며 상대등(上大等)의 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한 만큼 과단성이 있고 무력의 사용에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여겨진다. 전승에서는 알천의 물이 불어 김주원이 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원성왕에게 왕위가 돌아간 것처럼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성왕이 무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왕궁을 장악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위 계승에 실패한 김주원은 신라의 중앙 정계에서 퇴진하여 명주(溟州)(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 3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다

원성왕 이후 그의 자손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거나 반란에 휘말려 시해되는 등 재위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30여 년이 지나 원성왕의 손자인 헌덕왕(憲德王)이 왕위에 있던 822년(헌덕왕 14)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킬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도독이었으며, 장안(長安)이라는 국호를 내세우고 경운(慶雲)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김헌창이 난을 일으킨 명목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이라고 전한다. 이와 동시에 그가 원성왕계의 경계와 감시 대상이 되어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지방을 떠돌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김헌창은 잠시 시중의 직을 맡기도 하였으나 무진주도독(武珍州都督), 청주도독(靑州都督) 등 지방직을 계속 맡았으며, 난을 일으키기 직전에는 다시 웅천주도독에 임명되었던 터였다.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자 무진주(武珍州), 완산주(完山州), 청주(靑州), 사벌주(沙伐州)가 가세하였고, 국원경(國原京), 서원경(西原京), 금관경(金官京)과 여러 군현의 수령들이 가세하였다. 신라의 9개 주 중 무려 5개 주가 바라는 데 가담하였다 하며 하사주(訶沙州), 오드주(烏頭州), 사라주(沙羅州)